"제주농어업유산 자원실태 파악해야"

강승진 박사 '중국·일본 등록사례' 보고서 주장
전담조직·추진위 등 체계 구성 제도적 기반 필요

제주지역 농어업·농어촌유산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농어업·농어촌유산 자원실태를 파악하고 가칭 '농업유산발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농업유산 지정과 더 나아가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관련기사 7면

제주발전연구원 강승진(사진) 연구위원은 '중국·일본지역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록사례와 제주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제주의 각 지역과 마을에 숨어 있는 유산을 발굴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강 연구위원은 현재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을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총괄 실무책임자로 활동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아시아지역은 총 25개 가운데 17개 지역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국이 8개로 가장 많고 일본 5개, 인도 3개, 필리핀 1개 순이며, 우리나라는 아직 등재 지역이 한군데도 없다.

중국은 세계농업유산 예비체계인 국가중요농업제도(NIAHS) 도입을 통해 세계농업유산 승인을 위한 메뉴얼과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국의 인가제도가 자리매김했다. 강 연구위원은 "제주밭담의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중국의 NIAHS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도쿄에 있는 유엔대학(UNU)의 역할에 힘입어 5개 지역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강 연구위원은 "제주밭담을 조기에 세계농업유산에 등재시킴으로써, 제주지역에 UNU와 같은 협력기구를 설립해 아시아 및 우리나라에서의 세계농업유산 등재와 발굴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의 지역 농업유산 가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농업유산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업·농어촌 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세계농업유산의 등재 기준에 맞게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최근 일본의 경우와 같이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전통농업, 농업자원 등의 국가농업유산 지정과 세계농업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가칭 '농업유산등록추진위원회' 등 조직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시영기자 sykang@ihalla.com

제주물류 유통 새 시대 개막

道,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사업자 신광해운 선정
제주-수도권 연결 거점역할… 年 60억 절감 기대

제주자치도는 제주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물류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운영 사업자로 (주)신광해운을 선정했다.

제주자치도는 8일 지난달 실시한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공모에 신청한 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물류센터 사용료 가격 입찰을 실시한 결과 (주)신광해운이 낙찰됐다고 밝혔다. (주)신광해운은 1년에 3억2100만원의 사용료를 내기로 했다.

평택항 종합물류센터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1만1171㎡ 부지에 냉동실과 냉장실, 집하장을 갖춘 3104㎡ 규모로 올해까지 국비 24억1500만원과 지방비 24억1500만원 등 총 48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평택항 종합물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주)신광해운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신광해운은 4척의 화물선을 운항하고 있어 제주와 평택항을 연결하는 전용화물선도 확보하게 됐다.

제주자치도는 또 제주에서 평택항으로 올라가는 화물이 부족해 하절기 물량확보가 가장 큰 관건으로 대두됨에 따라 (주)신광해운 화물선으로 제주삼다수를 선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실시한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조성에 따른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물류센터 조성시 연간 60억여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에서 평택항까지 물류비는 목포, 완도, 녹동항에 비해 11톤 트럭 1대당 41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TP-행복한나눔 "기아대책 상호협력" (재)제주테크노파크와 기아대책 재단법인 행복한나눔은 8일 제주벤처마루 4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협력을 통한 석창포 영농조합 소득증대 및 자립기반구축, 신제품 개발을 통한 기아대책 나눔상품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키로 했다. 강경민기자

내일 도내 첫 특성화고 잡페어

10일 도내 처음으로 특성화고 등 고졸(예정)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고 청년 잡페어(Job Fair)'가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제주YWCA·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특성화고 청년 잡페어는 현장면접(채용) 25개 기업체, 채용정보 제공(간접 참여) 20개 기업체, 기업채용 설명회에 7개 기업이 참여하며 면접컨설팅, 타로적성검사, 지문적성검사 등 다양한 취업카운슬링 코너가 마련된다. 이외에도 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협의회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정보관 및 상담부스가 운영된다. 문의 710-2541. 오은지기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법안 발의

김재윤 의원, 애니메이션 제작비 세액공제 법안도

김재윤(사진) 국회의원이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분야로 평가받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 민주당·사진)은 8일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애니메이션 진흥을 위한 법안 2건을 여야 의원 31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애니메이션 제작,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해외진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시설 지정 등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과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방송사나 통신사 등이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등을 상대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금지하고 표준계약서로 계약하는 등 공정 유통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산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사나 영화업자가 국산 애니메이션을 제작·구매하는 데 지출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김치훈기자 chkim@ihalla.com

사회적경제 학술 심포지엄
내일 오후 서귀포KAL호텔

따뜻한 시민경제를 통해 행복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꿈을 꾸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서귀포시와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사)사회적경제복지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13사회적경제 학술 심포지엄'이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전문가들로부터 우수사례를 직접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한편 현재 서귀포시 지역에는 사회적기업 5곳, 예비사회적기업 13곳, 마을기업 11곳, 협동조합 5곳, 자활기업 8곳 등 총 42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현숙기자

정의고을 전통민속재현축제 11~12일 개최

제20회 정의고을 전통민속재현축제가 11~12일 성읍민속마을 남문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표선면 성읍1리마을회(이장 홍성우)가 주최하고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이사장 현여송)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영주산 풍물패의 길트기 행사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식전행사로는 탈춤공연, 궐례의, 정의현감부임행차와 취타대 행진과 공연 등이 진행된다. 오후 6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댄스공연과 불꽃놀이, 정의고을 민속노래자랑이 이어진다.

둘째 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정의향교 주관 전통혼례식에 이어 방애찧기와 달구질 등의 전통민속놀이마당 공연 및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상설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갈옷만들기, 고소리술 시음, 물허벅과 전통혼례복 포토존 운영 등이 운영된다. 또 전통음식코너에서는 모듬범벅, 상외떡, 오메기떡 등을 제공한다. 이현숙기자

공휴일 부활 '한글날' 경축식 다채

23년만에 공휴일로 부활한 한글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이 9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학생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567돌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경축식에는 양성언 교육감의 훈민정음 서문 봉독에 이어 우근민 도지사의 한글발전 유공자 표창과 경축사, 한글날 노래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글날 경축행사와 관련 9일 오후 2시 제주대 국어문화원 주최로 제7회 전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다.

또 9일부터 13일까지 문예회관 제1·2전시관에서 전국 단위 공모 입상 작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12회 한글사랑서예대전 전시회가 이어진다. 이외에 한글날 경축분위기조성을 위해 도내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가 게양된다. 문의 710-6441.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서귀포시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보고회

서귀포시는 8일 한동주 시장의 읍면동 방문 때 지역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취임한 한 시장이 4일간 읍면동을 방문했을 때 151건의 지역주민 건의사항이 접수된 가운데 39건은 완료됐고 33건은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50건은 향후에, 21건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며 추진이 어려운 것도 8건으로 분석됐다.

이날 보고회는 건의사항 처리부서에서 사전 현장확인과 건의자 면담 등을 통해 작성한 추진상황을 보고·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추진이 가능한 건의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문은 예산반영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현기자

제주관음사포교당 보현사 토지매각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는 포교당으로 사용중인 보현사를 신도시로 이전 한다는 명분으로 보현사 컨체부지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신도들은 제주불교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보현사 매각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토지매각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한번 전국의 불자들에게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다음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보현사 매각사유와 우리의 입장

1) 매각이유 (관음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 ○ 사찰쇠락으로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야기
- ○ 주위 경쟁사찰이 많아 신도모집곤란
- ○ 불교대학운영으로 인한 사찰재정 미약
- ○ 위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신도시 포교를 위해 노형지역으로 이전

2)우리의 입장

보현사는 제주시내 중심인 이도2동(도남동)위치하여 주위 행정기관, 교육기관과 아파트 단지등이 밀접한 요지임. 사찰쇠락 주변경쟁사찰등의 이유라면 능력없는 주지임을 자인하는 꼴이며 능력있고, 포교의 사명감있는 새주지로 교체 해야 할 정도임.

□ 종단법위반

조계종단의 사찰운영위원회 법에 의하면 사찰 매각, 대여등 행위시 신도회장이 당연직 위원인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의결되어야 하나 신도회장에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임.

□ 매각 공고및 이후과정의 부당성

△마지못해 개최한 매각 설명회에서 신도들은 여러 부당함을 들어 반대하자 추후 재설명회를 갖겠다고 했으나 설명회 당일 저녁 신문에 매각공고를 게재함.
이는 신도들의 의사는 전혀 안중에 없다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사찰운영위원회법을 전면 부인하는 결과임.

△매각공고(2013.8.1)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6월초 제주시청에 이전예정지인 노형동 3056번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6월중순 허가를 받음바 신도들을 철저히 속이고 농락했다고 생각함.

△이전예정지 토지는 900여평인데 현 보현사 부지는 2100여평이다.
도심요지 땅을 팔아 시내 외곽지인 노형동에 1/2반 밖에 안되는 토지에 이전한다는 것은 눈뜨고 삼보 정재의 유실을 보는것과 같음.

△이전 예정지 소유자와 현보현사부지 낙찰자는 동일한 또는 동일 관계인으로 추정되는바 소유자와 매수자 그리고 관음사 또는 당시 보현사 주지인 함결스님과의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이전 예정지 소유자는 조계종 모 본사 신도회장, 또는 관련자로 인지중)

△신도들이 반대대책위원를 꾸려 총무원장님께 호소, 탄원등을 했고 아울러 재무부의 부장스님과 면담을 통해 반대이유를 설명한바 재무부는 여러 절차적 하자를들어 공문을 통해 관음사에 본 매각과 관련한 종무행위를 중지시키고 총무원, 관음사 그리고 반대의사를 밝힌 신도 대책위원회의 3자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제의 한바(한곳 이라도 반대하면 추진 보류 한다고 명시)이를 수용한 신도대책위는 문서를 통해 심의 일자를 재무부와 관음사에 통보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입장표명이 전혀없음.

△이런 심의위 구성등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관음사는 관음사종무실장을 통해 양방규에게 유선으로 종무회의 결정사항이라며 타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양방규 신도회장 해임을 통보함.

이와 같이 총무원은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면서 한편으로 교구본사는 매각을 계속진행함과 아울러 신도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어 그 의중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전국의 불자들에게 호소 합니다. 사찰 토지, 특히 불용지가 아닌 대웅전에 부처님이 봉안되어 신도들의 신앙활동을 하는 절을 매각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부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절을 짓고 탑을 세운 공덕은 말하며 절을 헐고 탑을 부숴버리는 악행에 대한 과보는 왜 말씀 않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지금의 보현사에 여법한 도량을 건립하고 주변을 단장하여 지역주민과 불자들의 심신을 수양하는 제주도의 대표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큰스님!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스님! 전국의 이천만불자 여러분!
부디 부처님의 혜안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보현사를 만들 수 있도록 굽어 살펴주소서.

2557년 10월 7일

제주관음사 포교당 보현사 매각반대 신도대책위원회 일동